

함평군 국가 교통안전 교육 거점 도약

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 유치

연간 1만 3600여명 교육생 수용

국비 424억 투입 2029년 개원

함평군이 국가 공공 교통안전 교육 인프라를 유치하며 교통안전 교육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함평군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 건립 사업이 2026년도 국회 본회의 예산에 최종 반영됨에 따라 대동면 운교리 자연생태공원 일원에 2029년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찰청이 주관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국가 공공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총사업비 424억원 전액이 국비로 투입된다. 2026년 공단 T/F팀 운영해 2027년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9년 개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교통안전교육원은 부지면적 2만 2046㎡, 건축

연면적 1만 1700㎡ 규모로 조성되며 교육연구시설과 교통안전 교육시설, 안전체험관 등을 갖춘 종합 교육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군은 2023년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정부예산 확보와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지난해 11월 비용편익분석(B/C) 1.0391을 기록하며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과 산출되는 이익을 비교해 투자를 결정하는 기법으로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함평 교통안전교육원 건립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도로교통 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교육 몰입도를 동시에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기능 강화와 함께, 지역과 국가를 아우르는 복합적 파급효과도 함께 창출될 전망이다.

교육원 개관 시 연간 1만 3610명이 교통안전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단 상주 인력 19명도 배치돼 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남도 내 교육원이 없는 공공기관과의 공

동 활용 체계를 구축해 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전남·전북·충청·경남 등 교통안전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35만명 규모의 체험형 사회교육 거점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원 건립에 따라 330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함께 450억원 규모의 지역 생산 활동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200억여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교육생 대상 100원 택시 운영, 기반시설 지원, 자연생태공원 내 유숙시설 무상 사용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교통안전교육원 유치는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함평이 국가 안전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역으로 도약하는 계기”라며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 상생을 동시에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담양 대나무공예의 어제와 오늘을 잇다

전수교육 성과물 전시회

명인·계승자 17인 작품 전시

대나무공예의 어제와 오늘을 잇는다.

담양군은 대숲 거울 작은공방' 주제로 명인과 계승자 17인이 참가하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군은 전시회에 앞서 지역 내 대나무 공예인을 양성하고 지속 가능한 대나무공예 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달 '2025년 하반기 대나무공예 명인·계승자 전수교육 성과 점검'을 마쳤다.

군은 이번 성과 점검을 바탕으로 다음 달 27일 까지 한국대나무박물관 흥보관에서 전수교육 성과물 전시회를 개최한다.

'대나무공예 계승자'는 대나무공예 기능을 전수받고자 하는 자로, 명인 또는 준명인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지정한다. 계승자들은 지정 후 5년 간 전수 종목에 따라 각 명인으로부터 주 1회, 하당 8시간씩 대나무공예 제작 기법에 대한 집중 교육을 받으며, 연 2회 엄격한 성과 점검을 거치는 체계적인 이수 과정을 밟게 된다.

담양군은 대나무공예 기능의 맥을 잇기 위해



대나무공예 계승자들이 대나무공예 제작 기법에 대한 집중 교육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28명의 계승 이수 자를 배출했으며, 2025년 12월 기준 8명의 계승자가 전수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대나무공예 명인·준명인과 계승자 등 총 17명이 참여해 한 해 동안의 연구성

과물 3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통 대나무공예의 정교한 전승 과정은 물론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담양 대나무공예의 생동감 넘치는 현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강진군 고3 학생에 '진로·진학 준비금' 50만원

강진군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지역 고등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강진군은 2025학년도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진로·진학 준비금'

을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 (강진고·생명과학고·병영상고·성전고·덕수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생이다.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진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이며, 학생이나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증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
알로에

장성군 건동광산 개발 국가 지원 대통령에 건의

김한종 군수 서한문 서명

장성군이 지역의 숙원 사업인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바라는 건의문을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했다.

장성군은 2026년 새해 첫 업무로 김한종 군수가 집무실에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문에 서명하며, 건동광산 개발에 대한 군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석탄 광산만 지원하고 있어, 건동광산 같은 석회석 광산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석회석 광산 역시 석탄 광산 못지 않게 국가 산업 기반 형성에 기여했음에도 폐광 이



김한종 장성군수가 지난 2일 집무실에서 대통령께 보내는 건의서한문에 서명하고 있다.

용이 담겨 있다.

장성군은 건동광산 지하 부지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을 구상·추진 중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 생활폐기물 배출 다국어 홍보물 제작

베트남·캄보디아 등 8개국 언어

제작해 나주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QR코드를 삽입해 나주시 대표 누리집과 바로 연결되도록 해 더욱 상세하고 정확한 생활폐기물 배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나주시는 언어장벽으로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디자인 흥보물을 제작해 무단투기 예방과 폐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선다.

나주시는 언어장벽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정 배출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접이식 리플렛 형태의 다국어 흥보물을 제작했다.

흥보에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종류별 배출 기준과 함께 부적정 배출 시 부과되는 과태료 안내를 담아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중국어, 태국어, 영어를 포함해 한국어까지 총 8개 언어로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세얼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교통사고 예방에 역점”

김경호 장흥경찰서장



의 협조를 받아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서장은 순천 출신으로 간부 52기로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외사국과 경무반장, 뉴질랜드 경찰주재관, 송파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장(경정)을 거쳐 2024년에 총경 승진과 함께 부산경찰청 친안지도관을 역임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